

휘발유 소비 6개월만에 대폭 감소

산자부, 7월 488만4000배럴로 10.1% 줄어 ... 에너지 과소비는 여전

고유가로 인해 휘발유 소비량이 6개월만에 처음으로 대폭 감소세로 돌아섰다.

산업자원부가 발표한 <월별 석유 소비동향>에 따르면, 7월 휘발유 소비량은 488만4000배럴로 2004년 7월 543만1000배럴보다 10.1% 감소했다.

휘발유 소비량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1월 이후 6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.

휘발유 소비증가율은 2005년 1월 -1%를 기록한 이후 2월 12.5%, 3월 8.1%, 4월 4.9%, 5월 4.7%, 6월 10.2%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.

자동차의 신규 등록대수가 4만8336대 증가했으나 휘발유 가격상승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.

반면, 고급휘발유 소비는 중대형 수입자동차의 등록대수가 2687대 증가한 영향 등으로 54.1% 증가했다.

7월 전체 석유 소비량은 고유가 지속에도 불구하고 나프타, LPG 등의 소비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.1% 증가한 5680만배럴을 기록했다.

경유는 가격상승과 레저용 경유자동차의 감소로 3.3% 감소했고, 병커C유 소비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가정·산업용이 25.4% 증가했으나 발전용(11.4%) 및 산업용(16.6%)은 감소해 전체적으로 5.6% 줄었다.

항공유는 아시아나항공의 노사분규로 18.4% 감소했으며 등유는 연탄 및 도시가스 보급·이용 확대에 따라 10.7% 감소하면서 감소세를 지속했다.

LPG는 특소세 인하의 영향으로 수송용 부탄 소비가 13.1% 늘어났으며 나프타는 석유화학제품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수요가 급증해 6.1% 증가했다.

한편, 7월 원유 도입량은 6.6% 증가한 6천700만배럴, 도입액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55.4% 증가한 35억5300만 달러, 도입단가도 45.8% 상승한 배럴당 53.26달러를 기록했다.

<화학저널 2005/08/30>